

‘제로배달 유니온’ 출시 기념 서울사랑상품권 1천200억원 발행

**중개수수료 최대2%로 확 낮추고,
서울사랑상품권으로 온라인 결제까지!
정답은 제로배달 유니온이다!**



제로배달 유니온이란?
배달업 시장의 높은 배달 중개수수료를 낮추고, 소상공인의 수수료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시가 민간협력방식으로 추진하는 주문배달 서비스입니다.

서비스개시 2020. 9.16
[이용혜택]
가맹점 낮은 중개수수료(최대2%) 이용가능,
서울사랑상품권 결제수수료 0.5%
소비자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 결제가능, 최대 10%할인 구매

이용방법
가맹점은 제로페이 회원 및 제로배달 가맹점 가입 후 여문 소비자는 14개 배달업 중 원하는 업 설치 후 이용
※사용가능 업 목록은 별도 확인

소비자 이용방법

1. 제로배달 앱 이용
앱스토어 or 플레이스토어 접속 후, 7개 배달업 중에서 원하는 업을 사용해 음식을 주문

2. '제로배달' 이용가능 업

 맛있는 소리, 띵동	 막개비	 BRS부르심Zero
 서울배달	 놀리요 시장	 로마켓
 맘마먹자		

3. 결제시 이용혜택
최대10% 할인받은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온라인 결제하기!

4. 결제완료

**서울사랑상품권으로
배달음식도
주문할 수 있다고?**

서울시와 중소배달 앱 사는 배달 중개 수수료를 0~2%로 대폭 낮춘 '제로배달 유니온' 서비스를 7개 배달 앱에서 먼저 시작하고, 제로배달 유니온에도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1천200억원을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.

제로배달 유니온은 지난 6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와 (재)한국간편결제진흥원, 소상공인단체, 민간 배달 앱 사가 함께 소상공인의 배달 중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한 민간협력방식의 일환이다.

서울시는 26만 제로페이 가맹점을 활용한 제로배달 가맹점 가입 지원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참여사는 2% 이하의 낮은 배달 중

개 수수료 제공과 함께 배달 앱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.

특히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서울사랑상품권은 7개 배달 앱에서 사용할 수 있고, 오픈기념으로 상품권 결제 시 1개월간 10% 추가할인(1일 최대 2천원, 월 최대 5만원) 행사도 진행한다. 예산 소진 시까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 20%를 할인(상품권 10% 할인구매 + 상품권 결제 시 10% 선할인)받을 수 있다.

'제로배달 영수증 경품행사(9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)'도 한다. 제로배달 앱에서 사용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영수증을 등록하면, 추첨을 통해 스마트TV, 안마의자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.

자세한 내용은 제로배달 이벤트 홈페이지(<http://zerodeliveryevent.co.kr>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제로배달 유니온 배달 앱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검색해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다.

서울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'제로배달 유니온' 가맹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. 가맹점 입점은 음식점, 카페, 동네마트 등 배달 가능 물품을 판매하는 서울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다. 가입을 원하는 사업자는 제로배달 유니온 홈페이지(<http://zeropaydelivery.or.kr>)에서 신청할 수 있다.

9월 16일부터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총 1천200억원 규모이며 종로구, 중구 등을 시작으로 총 24개 자치구에서 최대 10%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. 자치구별 발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.

- 9월 16일(수) 종로구, 중구, 성동구
- 9월 17일(목) 광진구, 중랑구, 성북구, 영등포구
- 9월 18일(금) 도봉구, 서대문구
- 9월 21일(월) 강북구, 금천구, 서초구
- 9월 22일(화) 동작구, 관악구
- 9월 23일(수) 용산구, 양천구, 송파구, 강동구
- 9월 24일(목) 은평구, 강남구
- 9월 25일(금) 동대문구
- 9월 28일(월) 용산구, 마포구, 구로구
- 10월 26일(월) 강서구

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 정책관은 "제로배달 유니온은 가맹점에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"며 "지역 내 소상공인도 살리고, 신생 배달 플랫폼 기업에 시장진입의 기회도 줄 수 있는 착한 배달 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"고 말했다. ●

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?

남이 씌워줄 땐 늦습니다



서울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

- 실내(운송수단 포함)/실외(집회 등 다중이 집합한 경우) *일상적 사생활·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
- 위반하여 코로나19 확산 초래 시 구상권 청구
- 8. 24.(월) ~ 별도 해제 시까지